

해외의약뉴스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위험 높아질 수 있다

개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Arthritis Care & Research*지에 발표되었다. COPD는 기도가 손상되어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일련의 폐 질환으로서, 최근 들어 COPD 발생에 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은 이 점에 주목하여 지속적 염증 상태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COPD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여러 교란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 COPD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47%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진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COPD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폐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키워드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염증, 기도, 호흡

최근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한다. COPD는 기도가 손상되어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일련의 폐 질환을 뜻한다.

*Arthritis Care & Research*지에 발표된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 COPD로 입원할 위험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47% 더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면역체계가 관절의 건강한 조직을 잘못 공격하여 발생한다. 그 결과 주로 무릎, 손, 팔목의 관절에서 염증이 발생하여 통증과 부종이 야기된다.

이 질환은 또한 근육, 힘줄, 결합조직, 섬유조직 등 다른 신체 부위도 공격할 수 있으며, 심장, 폐, 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정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1%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성 및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OPD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련의 질환으로서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천식 중 일부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COPD는 염증과 관련이 있다.

COPD는 진행됨에 따라 기침과 함께 다량의 가래가 동반되고, 호흡곤란이나 천명, 가슴 답답함과 같은 증상

도 발생한다.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인구의 6.4%가 COPD로 진단받았으며, COPD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다.

흡연은 COPD의 주요 원인이지만, COPD 환자의 ~25%는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PD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요인들로는 공기 오염, 화학 가스 및 일부 먼지와 같은 다른 폐 자극제들이 있다. 알파-1 안티트립신(alpha-1 antitrypsin) 결핍으로 불리는 희귀 유전질환도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수석 저자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류마티스학과 교수 Diane Lacaille 및 연구진은 이전 연구들에서 COPD와 염증 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점을 주목하였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속적인 염증 상태로서, 연구진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COPD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COPD 입원을 상승

연구진은 1996년~2006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 받은 환자 24,625명의 기록과 일반 사람들 중 무작위로 선별된 25,396명(대조군)의 기록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 사람들보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COPD로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잠재적 교란 요인들을 배제한 뒤에도 연구진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 COPD로 입원할 위험이 47%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저자는 “흡연 및 다양한 COPD 정의들에 대해 보정한 후에도 여전히 위험 상승이 유의하였다.”고 전했다.

‘초기 COPD 증상 주의할 것’

Lacaille 교수는 “염증이 COPD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최근에서야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및 이들을 진료하는 임상 의사는 COPD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폐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흡연 및 다른 COPD 위험 인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결과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염증을 조절하고, 사실상 염증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Diane Lacaille 교수

■ 원문정보 ■

<https://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319830.php>